

Worship

Global Worship Sunday 11am

multicultural multilingual multiethnic

The Forest of Living Water community Church is a holy community preparing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Christ through the ministry of raising up the Nazarite generation among All Nations, All Generations, and All Fields. The Forest of Living Water Community Church is a Missional Multicultural Church for international students.

forestlivingwater.org
landmarkerministry.com

YouTube Live Landmarker Ministry

Worship
Sunday Global Worship
Every Sunday @4PM

토기장이의 집 Potter's House 窑匠の家 16

히년 1

레위기 25:54-55

The Year of Jubilee 1 (Leviticus 25:54-55)

禧年 1 (利未记 25:54-55)



마음열기
Ice Breaker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유월절'을 주셨고,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초막절'을 주셨으며,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순절'을 지키도록 하셨다. 절기를 주신 뜻이 그러하듯이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고, 땅에 쉼을 주는 '안식년'을 통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확인시킴으로써 내 인생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셨고, '히년'을 통해 땅과 사람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셨다. '히년'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히년'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잊혀진 히년의 회복 / 이승열



소개하기
Introduction

히년, 'Jubilee'는 히브리어의 '요벨'(yobel)을 음역한 것으로 우리말로 '히년'이라고 번역된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세날 하요벨'(수양의 뿔의 해) 또는 단순히 '하요벨'(수양의 뿔)의 '요벨'에서 유래되었는데, '히년'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요벨'의 나팔소리에 의해 선포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나팔은 '요벨'과 '쏘파르'로 구분됩니다. '요벨'은 제사장만이 소지하여 불렀던 것으로 가나안 정복 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던 나팔이었던 반면 '쏘파르'는 백성들이 갖고 다니며 불렀던 나팔이었습니다(수6장) 이처럼 '요벨'은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히년, 50년이 되는 해는 '거룩한 해'이며 '드로르'(자유 또는 해방)가 선포됩니다.(레25:10) 히년은 노예와 토지와 가난한 자의 빚을 사면하고, 해방시키는 위대한 해로 노예가 된 인간과 빚 때문에 빼앗긴 땅과 빚 자체에 관해 모든 경제적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년을 기쁨과 사면의 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그 복음은 내적, 영적,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포함한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히년의 성취자로 오실 것입니다.



키워드
Keyword

잃어버린 세대, 잃어버린 유산

Lost Generation, Lost Inheritance 遗失的世代、遗失的产业

1. 희년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The year of Jubilee starts from 'the restoration of the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禧年始于“修复与神之间破裂的关系”。

1.1. 희년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25:8-9)

The year of Jubilee starts from 'the restoration of the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Leviticus25:8-9)

禧年始于修复与神之间破裂的关系。(利未记 25:8-9)

1.2. 희년은 잃어버린 사람과 잃어버린 유산의 회복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레위기25:10, 13)

The year of Jubilee is the restoration of the lost people and inheritance which rebuilds the fallen community of God.(Leviticus25:10, 13)

禧年是让遗失的人和产业各归本家,从而再建已瓦解的共同体。(利未记 25:10, 25:13)

2. 희년은 잃어버린 '모든 세대의 회복'입니다.

The year of Jubilee is 'the restoration of all generations' who have been lost.

禧年是让遗失的“所有世代回归”。

2.1. 희년은 잃어버린 모든 세대, 특별히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회복입니다. (레위기25:39-41, 52-55)

The year of Jubilee is the restoration of all generation; especially the lost next generation.
(Leviticus25:39-41, 52-55)

禧年是让遗失的所有世代,尤其是让遗失的下一代回归。(利未记 25:39-41, 25:52-55)

2.2. 희년은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2:7-15; 로마서12:2; 말라기4:5-6; 마태복음6:26-33; 누가복음11:9-13;
로마서12:2; 누가복음4:18-19; 이사야61:1-2)

In the year of Jubilee, the lost next generation gets to know God and enjoy the freedom of worship. (Judges2:7-15; Romans12:2; Malachi4:5-6; Matthew6:26-33; Luke11:9-13, 4:18-19; Isaiah61:1-2)

禧年是让遗失的下一代知道神,享受敬拜的自由。(士师记 2:7-15; 罗马书 12:2; 玛拉基书 4:5-6; 马太福音 6:26-33; 路加福音 11:9-13, 4:18-19; 以赛亚书 61:1-2)

더 나아가기 One Step Further

레위기 25:54-55 [개역개정]

54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यो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Leviticus 25:54-55 [NIV]

54. "Even if he is not redeemed in any of these ways, he and his children are to be released in the Year of Jubilee,

55. for the Israelites belong to me as servants. They are my servants, whom I brought out of Egypt. I am the LORD your God.

利未记 25:54-55 [CUNPSS]

54 他若不这样被赎,到了禧年,要和他的儿女一同出去。

55 因为以色列人都是我的仆人,是我从埃及地领出来的。我是耶和华—你们的神。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1. 당신의 인생 가운데 '노예됨', '빼앗김', '빛' 과 연관되어있는 내적, 정신적, 사회적, 현실적인 관계를 나눠봅시다.

2.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아가며, 잃어버린 거룩한 유산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